

## 【 17 】 송추 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

발의년월일 : 2000. 9. 5

제 안 자 : 김영안의원외 2인

### ☐ 제안이유

○ 송추지역은 30여년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구역조정이 없어 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2중 3중의 제약을 받고 있어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별첨”

## 송추 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문

환경오염·훼손을 예방관리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꾸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부장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께 우리 양주군 의회의원 일동은 11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에 엄격한 행위제한과 1967년 최초 국립공원 지정이래 30여년간 단 한번도 구역조정이 없어 공원관할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과 재산상의 불이익등으로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자 '95. 12. 30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10년마다 공원구역을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97년 8월부터 공원구역 조정기준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구역조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 중에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년말까지는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의하면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한 송추집단시설지구 500,000㎡중 316,463㎡는 존치가 되고 여기서 감소되는 면적 183,537㎡중 37,890㎡는 자연취락지구로, 145,647㎡는 자연환경지구로 각각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지주민들과 우리군 의회의 의견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공원구역지정으로 지난 15년간 재산권 행사의 규제는 물론 생활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집단시설지구 500,000㎡의 모두를 밀집취락지구로 재조정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송추유원지는 수백년전부터 조상대대로 농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된 밀집 부락(약 200호)으로 1960년 전후해서는 계곡을 중심으로 상가가 입주되어 농업과 상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천되었으나 1969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1985년 국립공원으로 각각 지정고시되어 지난 30년간 각종의 중첩되는 규제로 인하여 노후된 주택등 주변이 낙후되어 자연풍경을 해치고 주민생활 환경 역시 극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2. 장흥면민들은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북한산 국립공원면적 78.54㎢의 0.6%로 극히 미미한 송추집단시설지구 500,000㎡에 대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위한 범 면민(1,700여명)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997년부터 중앙관계부서에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 건의하였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환경보전 및 공원 관리적측면과 공원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 측면을 참작하여 현재 추진중인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3. 송추지역은 1985년 국립공원지정 이전부터 이미 계곡을 중심으로 밀집상가가 형성되어 주민의 일상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생활의 터전으로 자리가 굳어졌기 때문에 취락중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립공원 탐방객에게 양질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4. 이 지역이 국립공원경계에 연접한 20호이상 밀집된 취락이고 집단시설지구 지정이후 장기간(10년이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곳으로서 환경부에서 정한 밀집취락지구로의 용도지구 조정 기준에도 부합됨은 물론 제반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기히 완비되어 추가로 환경오염이나 파괴는 있을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특성상 어떠한 난개발도 용납이 안됨으로서 계곡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양호하게 유지되어 자연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5. 그러므로, 금회 국립공원구역조정시 밀집취락지구로 재조정되는 근본적 해결 없이는 향후에 지역주민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노후화된 지역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면모의 일신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예절한 여망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의 생태적, 경관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송추 집단시설 지구 전 면적(500,000㎡)을 밀집취락지구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년 9월 9일

양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